

## (주)양지사

1976년에 설립된 (주)양지사(대표이사 김용세, www.yangjisa.com)는 국내 시장에 다이어리 제품을 특화 아이템으로 자리매김 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뿐만 아니라 다이어리 상품이 지닌 취약성인 단기성을 극복하고자 사업 초기부터 국내시장을 뛰어넘어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적극 모색했다.

이런 가운데 끊임없이 신제품 개발에 몰두했고 품질향상에 매진했으며 이를 통해 해외수출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 2003년에는 1640만6736달러치를 수출, 전년대비 33%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하며 업계 최고 실적을 올렸다.

1978년 호주시장에 처음으로 수출을 시작한 이래 해외시장 진출에 가속도를

붙인 양지사의 해외수출 실적은 매해 가파른 성장곡선을 그렸다. 1985년에는 미국에 뉴욕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미주시장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은 양지사는 현재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를 비롯해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등 전 세계 30여 개국 100여 업체들과 손잡고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세계 유수 언론업체인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 다이어리업계의 대명사격인 영국의 렛츠(Letts)사, 세계적인 아트북 출판사인 독일의 타센(Taschen)사 등의 유명 회사들이 양지사의 주요 거래처들이다.

2000년, 1000만달러 수출 달성  
일찍이 한정돼 있으면서도 경쟁이 치



# ‘2000만달러 수출’ 꿈 아니다

열한 국내시장을 뛰어넘어 세계시장으로 눈을 돌린 양지사는 인쇄업계에서는 흔하지 않게 1986년에 200만달러 수출을 달성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이에 멈추지 않고 수출사업에 박차를 가한 양지사는 1989년에 500만달러 수출을 달성했으며, 2000년에는 1000만달러 수출의 탑 표창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에 양지사는 관련 포상도 많았다. 1981년에 수출 유공자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이래 1987년 무역협회 신상품개발 및 수출시장개척 유공표창, 1988년 인쇄문화발전 및 인쇄물 수출공헌 대통령 표창, 1989년 상공부장관 수출유공자 표창, 1991년 문화부장관 인쇄문화발전 공로 표창을 수상했으며 2000년 상공인의 날 대통령 산업 포장, 2002년 옥관문화훈장 등을 수훈했다.

## 10명 뚝뚝 뭉쳐 목표 달성 위해 한 길

현재 양지사 해외사업부(부장 송경중)에는 10명의 사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해외사업부 직원 10명은 각각 미주, 유럽, 호주, 일본 등의 담당지역을 맡아 영업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해외 문구 및 서적전시회에 참가해 양지사와 양지사 제품을 홍보하며 세계 우수 다

이어리 및 문구와 인쇄제본제품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같이 제시된 올해의 목표는 수출, 2000만달러 달성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2000만달러 수출은 더 이상 꿈이 아니다. 이미 지난해에 1640만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려 수출 목표 2000만달러가 가시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특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서원들의 협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송 부장의 신념에 따라 해외사업부 10명은 오늘도 뚝뚝 뭉쳐 한길을 걷고 있다.

주력제품인 다이어리에서부터 4도 원색의 아트북, 서적 및 성경 등 양지사에서 생산되는 모든 인쇄제품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보급하기 위해 분투하는 이들에게 하루 24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 경쟁심화 속에도 설비투자 확대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중국의 인쇄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어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대외적인 환경 속에서도 양지사는 설비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생산성을 향상시켜 가격경쟁력을 제고

하고 고품질제품을 실현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더욱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함이다. 또한 철저한 전문성을 지향하며 프리프레스 분야에서부터 생산 각 공정에 이르기까지 첨단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기술개발을 독려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다이어리를 비롯한 전통적인 주력 산업에서부터 1987년 제본전문회사(주)명지문화를 설립하여 인쇄 제본업까지도 국내는 물론 아시아 최강의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또한 해외 바이어들도 세계 선진 각 국으로 분산함으로써 고른 수출주문을 확보함은 물론, 일정지역 편재로 인한 위험성도 배제시키고 있다.

지난해 CTP 등 편집, 제판, 인쇄, 제본의 인쇄 관련 모든 공정을 일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비를 최신 장비로 구축한 양지사는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여 해외 거래선으로부터 확실한 위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특히, 올해에는 선진국형 생산·품질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효율, 고품질의 제품생산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세계 다이어리, 인쇄제본시장에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 양지사는 이미 그 청사진을 강력히 실행하고 있다.

〈조갑준 기자〉